

1997년 3월 24일 월요일

□알바니아사태에 대한 분석과 전망

불 붙은 유럽의 화약고

강 랑

(공보처 전문위원)

알바니아사태는 지난 1월 15일 피라미드금융사기건으로 시위가 촉발된 후 견장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알바니아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중에 하나이며 지금껏 내전을 치른 유고슬라비아, 그리고 또다른 최빈국인 마케도니아, EU회원국 하나이며 회교국인 그리스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아드리아해를 사이에 두고 선진유럽국인 이탈리아와 이웃해 있는 나라이다.

이번에 국민절반 이상이 피해를 본 피라미드 금융사기 사건은 총 10억달러 규모의 피해를 냈으며 이 금액은 알바니아가 지고 있는 총외채액과도 맞먹는 액이다. 이번 사기건과 관련해 많은 수의 정부관료와 재계지도급인사들이 이를 방조하거나 도와주었다는 루머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으며 모든 재산을 탕진한 시민들은 이번 금융사기의 부패고리에서 복부출신의 베리사대통령이 직접 개입된 것으로 믿고 있다. 특히 피해가 컸던 납부주인들은 순식간에 폭도로 변해 반정부 무장투쟁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무장투쟁이 시작되자 1월 29일 야당연합은 조기총선거를 연립정부구성을 촉구하기 시작했으며 급기야 2월 18일 베리사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문제해결에 나섰다. 그러나 북부출신의 베리사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문제해결에 나섰다.

□조선대 류재울(행정2)군 시위도중 사망

대책위측, 사인에 대해 의혹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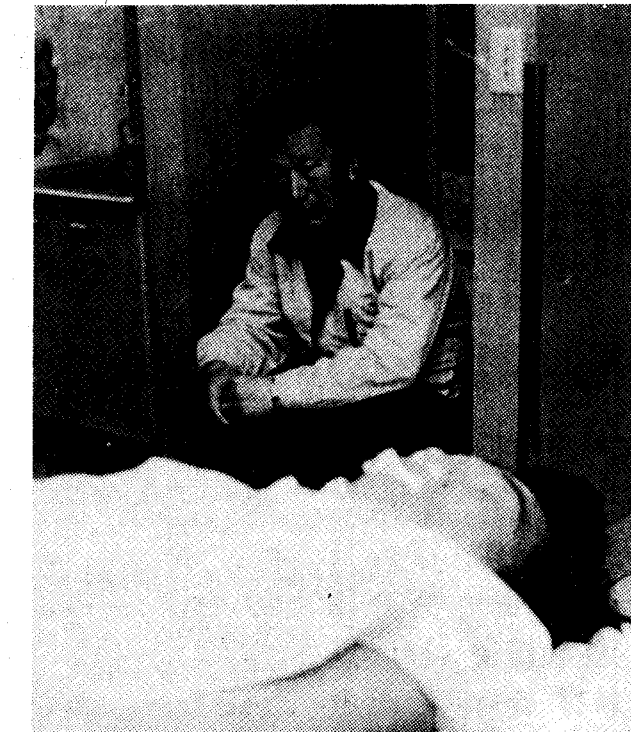
지난 20일 "김영삼 타도와 신한국당 해체"를 위한 시위를 벌이던 조선대학교 류재울(행정2)군이 시위도중 의문사하였다. 류재울군의 사체를 진찰·조리한 조선대 부속병원 의사들은 사체의 외상만으로는 사인을 단정 지을 수 없음을 진단, 보고했다. 각종 일간지와 TV에서는 류군의 사인을 "집회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생긴 심장마비"로 보

도하였으나, "류군이 돌 또는 어떤 검은 물체에 맞아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2명의 목격자가 있어 사체부검이 있기 전까지는 사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 당일인 20일 새벽 류군은 신한국당을 향한 행진시위에 참여 후 조선대로 장소를 옮겨 시위를 계속했다. 학생과 전투경찰 사이에 대치상황은 투석전과 최루탄 발포등의 격한 양상

으로 전개되었다. 대치상황이 더욱 격해지자 경찰측은 시위진압을 시도, 이 과정에서 류군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부상을 당한 류군은 병원으로 후송되어 약물투여, 심장마비, 인공호흡등의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오후 3시경 사망하였다. 류군의 사망과 함께 비상적으로 조직된 '애국학생'과 류재를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사체부검으로 구체적인 사인규명

을 할 것이며 사인규명집회와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측에서 강제압수·수색영장에 의한 류군 사체부검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대책위측과의 대립이 예고되고 있다. (김용운 기자)

발생하기 전에 유럽은 조치를 취해야 할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이다. 3월 16일 EU는 알바니아사태 진정을 위해 고문단과견을 결정했으며, 특히 알바니아 난민들로 인해 발생부터 끝까지 알바니아사태에 개입할 것을 선언하자, 위기를 느낀 베리사대통령은 납부출신이며 독재와 부패혐의로 수감중인 정적 파토스 다노사회당수를 사면시켜가 납부인들을 진정시키고 나아가 납부출신이며 야당인 사회당소속의 경제학자 바시킨 나노를 총리로 전격 채용해 국내적 소요사태를 해결하려는



▲지난 20일 시위 도중 의문사한 류군 사인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측에서 사체 강제부검을 실시할 것으로 보여 대책위측과의 대립이 예상된다.

강단시론

최 정 우

(자연대 물리과)



우리 속담에 '핑 먹고 알 먹고'라는 말이 있다. 비슷한 어감을 주는 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라는 말도 있고 한자성어로 '일석이조(一石二鳥)'라는 말도 있다. 일견 들이 참 좋은 말들이나 세상사가 이와 같이 순탄할지, 이와 같은 말들로 우리가 어떤 착각을 갖게 될 위험은 없는 지 점검해 보고 싶다.

사회속 공평성의 원리

나는 최근 몇 년간 전자학이라는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물리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전자계측기의 원리를 소개하는 과목인데, 이중 'Principles of Electronic Justice'라는 원리가 있다. 전자학에서의 '공평성의 원리'라 번역할 수 있는 이 원리는 전자기기를 만들 때 이것도 좋게 하고 저것도 좋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배울을 크게 하면 정확도가 떨어지고 정확도를 높이면 배율이 줄어든다. 이는 '핑 먹고 알 먹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자연원리로 두가지 배치되는 성질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택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배율은

이다. 과장된 점이 많았으나 그런 보드가 드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무뚝뚝하고 말쑥씨가 없으면 어떤가? 만일 그런 보드가 있다면 누구에게라도 환영받을 것이다. 프로에게서는 프로의 냄새가 나야 한다. 내가 최근 그러한 향기를 느낀 실존인물로는 대호소설 '토지(土地)'를 쓴 박경리 선생님을 들 수 있다. 그것은 그의 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TV를 통해 그가 사는 모습을 보았을 때였다. 유명작가여서 TV연속극에 자주 보이는 모습처럼 깨끗한 모습의 잘 정돈된 거실에서 인터뷰하는 모습을 기대했었음인가? 예상과는 다르게 허름한 토담집에서 닭을 몰고 다니시는 모습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느꼈다. 그 장면만 보고 속단하기는 금물일 지 모르나 나는 거기서 그 분의 삶이 진솔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그의 글은 일부가 팔려되어 국어 교과서에도 실린다고 하는 데 아파트 투기 동등 신문지상을 시끄럽게 채우는 많은 이들의 모습과는 꼭 동떨어진 모습이 다. 이제 그는 유명하게 되었으나 이 영광은 그의 노력에 비하면 오히려 부추려주고

'핑 먹고 알 먹고' 유감

얼마로 하고 정확도는 얼마로 취할 것인지에 대한 최적화 이론이 필요하다. 어찌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 이치는 모든 것에서 1등이기만을 추구하는 우리 풍토에서 한번쯤 되새겨 볼만한 원리가 아닌가 싶다. 돈도 벌고 명예도 갖고 권력도 갖고, 일은 편하고 시간은 자유롭고 보수는 많게, 중용을 강조하는 동양적 사고방식 위에서 자란 우리는 이런 방법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은연중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위의 공평성 원리는 적어도 자연에서는 이러한 추구가 헛된 수고임을 극명하게 나타내 준다.

사람 사회에서도 이러한 원리가 더 타당한 것이 아닐까? 하나를 얻으면 다른 것은 내놔야 하는 것이 세상이지이다. 모든 것을 다 차지하려는 욕심이 현재 우리 사회를 혼탁하게 하고 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추세를 하고 기업은 일한 대가로 돈을 벌려는 것이 아니라 로비활동을 통해 '누이 좋고 매부 좋게' 일을 처리하려 한다. 그러나 '누이가 좋아하고 매부가 좋아할 때' 다른 사람도 모두 좋아하는 지 꼭 생각해 볼 일이다.

요즘 경제가 어렵고 국가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다 한다. 이제 우리에게 진정으로 아쉬운 것은 많은 수의 참다운 프로가 아닐까 싶다. 프로라는 말을 쓸 때 내게 제일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는 수년 전에 선 풍적인 인기를 누렸던 TV 드라마 '모래시계'에서 여주인공을 보호하는 임무를 띤, 배우 이정재가 연기한 보디가드의 이미지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보다 더 힘든 일을 하고도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보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보면 박경리 선생님도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 삶을 그렇게 꾸려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목욕하기 자기 일을 해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름답다. 나는 어렸을 때 학교 갔다 돌아오면 늘 집에서 나를 맞아 주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좋았다. 어머니가 늘 그 자리에 계시므로 세상에 대한 안정성, 푸근함을 느꼈지 않았나 싶다. 정해진 시간에 늘 오는 기차, 언제나 기대를 꺾지 않는 어느 음식점 이렇게 제자리를 지키는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는 세상에 대한 믿음을 얻고 살맛을 느낀다.

진정한 프로로 거듭나야

올해부터 우리학교에서 학부제가 시작되었다. 이제 선택의 많은 문은 학생 스스로의 결정에 따르게 되었다. 얼마나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핑 먹고 알 먹을 수 있는 길을 찾아 방향하게 될 지, 소신을 가지고 갈날 같은 결정을 하는 학생은 얼마나 많을 지 아직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하고 싶은 바를 신수속고하여 정하고 그 길로 매진하여 그 분야에서 진정한 경쟁력을 지닌 승부사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Here is the PAGODA!!

지구촌을 우리의 활동무대로! 세계를 우리의 인재로!

이 지구촌의 끝 남극점과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에 우리 태극기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올려 놓았던 파고다의 'CAN DO' 정신은 귀히를 반드시 외국어 정상에 올려 놓을것입니다.

이미, 세계적인 명문 대학들과 손잡고 27년동안 우리나라 외국어 교육의 외진만을 걸어온 저희 PAGODA는 가장 쉽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국인을 위해 고안된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교육합니다.

PAGODA 종로: 274-4000 PAGODA 압구정: 3442-4000 PAGODA 신촌: 706-4002 PAGODA 강남: 501-4002

7급 공무원 법원·검찰

5급 한국통신	경찰 간부
감사·세무	경찰 승진
시험·행시	경찰 직

개강: 매월 초

장학생 선발안내

- 특혜: 수강료 및 숙박시설 무료제공
- 대상: 7·9급 공무원 수험생
- 시험일: '97년 3월23일(일)

9급 대비 문제풀이반 개강

- 1개월완성, 오전반, 야간반, 주말반
- 문제풀이를 통한 이론의 정리로 고득점 목표

검찰직 최종정리반

- 46일 완성 최종마무리반
- 핵심문제풀이를 통한 이론의 정리

국어문제풀이(9급)

- 1개월완성, 핵심정리

진기명 교수팀의 전문강좌가 "전국최다합격신화의 재확인"

감정평가사

개강: 매월 초

확실한 출제경향 분석에 따른 체계적이고 성실한 강의로 합격의 지름길로 안내합니다.

문제풀이반(1차대비)

- 중요문제풀이를 통한 이론의 체계적 정리 및 고득점 전략 제시

45일 완성 최종점검반

- 개강: 5월 1일
- 기간: 45일 완성
- 시간: 오전반, 야간반, 주말반
- 특징:
 - 출제경향분석에 따른 예상문제풀이
 - 문제풀이를 통한 이론의 정리

무료집중강의 개강

- 개강: 4월 21일
- ※ 5월 1일부터 최종점검반 수강생에 한하여 수강가능

남부행정고시학원

(02)815-7819/7839
(02)812-2333/2334
(노랑전철역옆)